

# “古下 宋鎮禹는 建國를 닦은 巨木”

## 탄신 100주년 추모강연회

올해는 교육가 언론인 정치가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닦는데 크게 기여한 古下 宋鎮禹 선생의 탄생 1백주년(8일)이 되

는 해. 이를 기념하기 위해 故人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東亞日報社에서 古下 宋鎮禹全集을 출간하고 3일 오후에는 탄신 1백주년 추모강연회를 가졌다.

古下는 1890년 全南 潭陽에서 태어나 1906년 日本의 英學塾에서 仁村 金性洙 선생 등과 함께 신학문을 배웠고 日本의 유학, 明治大學 법과를 1915년에 졸업했다.

귀국 후 仁村이 東京으로 돌아간 후 古下는 仁村의 遺著인 『獨逸의 政治』를 저술했고 『獨逸의 政治』를 1915년에 출판했다.

古下 宋鎮禹全集 東亞日報社에서 펴냈던 古下 전기를 증보해서 펴낸 것이다. 65년판은 6.25때 주

48인의 한사람으로 체포돼 1년반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21년 東亞日報社가 주식회사로 개편되자 3대사장으로 취임, 40년 8월 10일 東亞日報가 강제폐간될 때까지 20여년간 사장 고문 주필 등을 역임

했다. 해방 후에는 韓民黨을 결성해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45년 12월 30일 韓驛宇의 자격으로 별세했다.

이 해약한다고 강조했다. 고 회고하면서 古下の 철학인 오늘날의 정치지도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古下 宋鎮禹先生

### “민족분열 막기 위해 온갖 노력 ‘잔 피 없는 당당한 政治’ 강조

향한 執念(執念) 1965년 東亞日報社에서 펴냈던 古下 전기를 증보해서 펴낸 것이다. 65년판은 6.25때 주

진탕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의 자료를 보완하고 문장을 쉽게 할

필요자료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생존자들의 구술과 일부 자료를 토대로 쓰여

古下관계자로부터 얻은 「古下의 政治」는 古下가 일제 하에서 지낸 남긴 여려가

이 중이외에 실린 대표작인 『學之光』에 기고한 사상개

이 책은 일제하에서 전개된 유구한 민족의식의 큰 흐름 속에서 그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고 밝

獨逸의 政治

古下의 政治

宋鎮禹評傳

古下 宋鎮禹先生

古下 宋鎮禹先生

안수집한 자료와 연구결

고 있다.